

動向分析

經濟一般

◆ 경제성장률은 12.8%이나 경기불안요인 잠재

2000년 1/4분기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2.8%를 기록하는 등 1999년 3/4분기 이후 실물경기가 상승기조를 나타내고 있어 고성장, 저물가, 저실업이라는 이른바 신경경제의 외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월 이후 국제유가 및 환율이 상승하고, 임금인상률이 증가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중 경기정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이 다소 수정되어 금년 중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IMF 3년차 증후군'에 대한 경고의 소리도 높다¹⁾.

하지만 산업생산은 2000년 1/4분기 13.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제조업(23.0%) 및 서비스업(11.7%)은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건설업(-7.8%)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용기계(50.8%), 컴퓨터, 반도체 및 음향통신기기 등 전기전자(49.8%), 자동차 등 운수장비업(20.5%)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호조를 보였을 뿐 아니라 경공업 부문에서도 8.3%의 견실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통신업(26.8%)과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6.0%)이 이동통신 및 인터넷 등의 보급·확산, 주식거래대금의 급증, 토지거래 증가 등으로 급성장을 한데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휴대전화, PC,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의류, 가방 등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러한 민간소비 증가에 대해 경기호조에 따른 과소비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000년 1/4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소비성향은 79.4%로 1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고정투자는 건설투자도 감소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63.6%)가 급속히 회복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하였다.

1) 멕시코의 경우 IMF 자금지원을 받은 지 3년차였던 1985년 경상수지 적자 반전, 물가급등, 고금리, 생산위축 등 국가경제 위기가 재발했었다.

〈표 1〉 경제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

(단위: %)

	1998	1999p					2000p
	1/4	1/4	2/4	3/4	4/4	연간	1/4
국 내 총 생 산(GDP)	-4.6	5.4	10.8	12.8	13.0	10.7	12.8
산 업	-3.8	5.7	11.4	13.3	12.8	11.0	13.3
제 조 업	-5.2	10.7	21.5	27.3	27.2	21.8	23.0
건 설 업	-2.9	-14.2	-7.1	-9.5	-10.5	-10.1	-7.8
서 비 스 업 ¹⁾	-6.1	7.6	11.6	13.0	14.4	11.7	11.7
최 종 소 비 지 출	-9.9	5.3	8.4	10.1	10.1	8.5	9.7
(민 간)	-11.6	6.7	10.3	12.1	12.1	10.3	11.2
(정 부)	0.8	-2.0	-1.7	0.1	0.8	-0.6	0.7
총 고 정 자 본 형 성	-19.9	-4.2	4.9	7.0	7.6	4.1	22.4
(건 설)	-5.1	-13.6	-8.5	-9.8	-10.2	-10.3	-7.0
(설 비)	-37.7	13.0	37.3	48.5	55.1	38.0	63.6
재 화와 서 비 스의 수 출	25.8	9.2	14.6	20.0	21.0	16.3	25.1
(상 품) ²⁾	26.7	11.3	17.5	23.1	23.3	19.0	28.6
재 화와 서 비 스의 수 입	-27.3	27.3	28.3	32.3	28.0	28.9	31.3
(상 품) ²⁾	-28.0	27.0	31.3	40.2	32.8	32.8	35.4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며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2) f.o.b. 기준.

3) p는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1/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2000. 5.

◆ 물가는 안정세 지속 : 상승압력은 증대

2000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5%,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두 자리수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두 지수 모두 1999년 1/4분기 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 국제유가 및 임금동향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은 꾸준히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2/4분기 이후 급등이 예상되고, 협약임금 인상률도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²⁾을 보이고 있다.

2) 5월말 현재 7.4%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임금상승률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노사관계 부분을 참조.

◆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2000년 1/4분기 경상수지 흑자폭은 12.9억달러로 전년동기의 61.9억달러에 비해 58.8억달러 축소되었다. 이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2〉 국제수지

(단위: 억달러)

	1999	1999. 1/4	2000. 1/4
경상수지	250.0	61.7	12.9
상품수지	287.2	67.8	23.0
서비스수지	-10.1	-2.5	-8.5
소득수지	-46.6	-9.2	-4.1
경상이전수지	19.5	5.5	2.6
자본수지	5.8	10.1	85.3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3월 중 국제수지 동향』.

◆ 지식기반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가

경기불안요인이 상존하고는 있으나 지식기반산업이 최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어³⁾ 경제구조 개혁이 지식정보산업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경기상승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1991~99년간 지식기반산업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13.7%로 여타산업(4.1%)보다 9.6%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첨단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여타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성장기여도에서도 1999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10.7% 중 4.8%포인트(기여율 45.6%)가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이 GDP(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4.7%에서 1999년에는 20.5%로 상승하였다.

3) 한국은행, 『지식기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2000. 4.

〈표 3〉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 추이(1995년 가격 기준)

(단위: %, %포인트)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99 (평균)
경제성장률	9.2	5.4	5.5	8.3	8.9	6.8	5.0	-6.7	10.7	5.8
지식기반산업	16.0	10.8	14.2	14.7	19.1	10.7	12.6	4.1	21.8	13.7
첨단제조업	5.5	3.4	15.5	23.3	36.3	12.2	26.2	19.1	45.8	20.1
통신서비스업	18.6	14.7	14.3	19.0	22.4	18.8	20.7	12.8	27.2	18.7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19.3	12.4	13.9	11.5	12.9	8.5	5.2	-5.4	5.5	9.1
기타산업	8.2	4.6	4.0	7.1	6.9	5.9	3.3	-9.4	7.5	4.1
대GDP 비중 ¹⁾	14.7	15.6	15.9	16.6	17.9	18.0	18.1	18.7	20.5	-
첨단제조업	2.8	2.8	3.1	3.6	4.4	3.8	3.8	4.4	5.4	-
통신서비스업	2.3	2.3	2.2	2.2	2.4	2.5	2.6	2.7	3.0	-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9.7	10.5	10.5	10.7	11.2	11.6	11.7	11.6	12.1	-

주: 1) 명목 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지식기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2000. 4.